

아파트 거주자의 물품수납 의식 및 만족도 연구

—침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Apartment Resident's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n Storage Space in Bedroom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부교수 박영순*
박사과정 노현선**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Park, Young Soon
Ph D. Course : Ro, Hyun Sun

目 次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및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storage space and furniture in apartments smaller than 40 pyong(132m²).

The following were investigated;

1. the rate of residents using beds and their future desire for using beds.
2. the rate of households that have built-in furniture, and residents' desire for having them.
3. types of storage furniture more needed.
4. residents'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storage space.
5. the depths of wardrobes and the heights of racks inside wardrobes.
6. storing conditions of articles seasonal or seldom used.

• 본 연구는 '89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아파트 불박이 가구의 모듈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부교수

**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박사과정

I. 서론

현대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그 기능적인 편리성 때문에 크게 선호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급물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획일적인 공간구성은 그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각기 다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거주성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물품수납에 있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수납」이란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위치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유지, 보존하는 것(廣凍謙二, 岩下敏昭, 1972, 재인용)으로서 환경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 방법이다. 주거 내의 수납공간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각종 수납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종류나 양은 제한요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획일적인 공간구성을 갖는 아파트에 있어 각기 다른 거주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납공간의 계획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자를 중심으로 하여 물품수납에 관한 실태 및 의견을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면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 수납공간의 계획은 가능한 것이다.

기존의 아파트에서도 평면계획단계부터 불박이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수납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거주자의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그 위치나 크기 및 구조 등이 생활자의 수납용도에 적합치 못한 경우가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각 실이나 혹은 가족 1인당에 대한 필요 수납공간을 제시한 연구들(송종석, 이인희, 1975; 윤도근, 건설부, 1976, 1978; 이문섭, 1978; 박인숙, 1983 등)은 있지만 수납물에 관련된 제반사항이나 사용자의 요구를 깊이있게 조사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앞으로의 공동주택 구조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가변화되어가는 추세이며(권광태, 1990), 이러한 주택구조의 변화는 수납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가변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를 크게 할 것이다. 특히 주택에서 면적 및 기능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침실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물품수납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된 40평 이하의 중소규모 아파트의 침실을 중심으로(이훈, 1980; 김용환, 1984; 송규풍, 1987; 허선, 1987) 거주자의 수납공간 및 수납가구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와 더욱 요구되는 수납설비의 유형, 그리고 불박이장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아파트 침실수납공간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침구수납 공간계획을 설정하기 위하여 침대사용의 현황 및 앞으로의 희망여부를 조사한다.
2. 불박이가구 보유율과 앞으로의 설치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불박이 가구이외에 장롱의 소유에 대한 희망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3. 수납가구의 보유율 및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납설비의 유형을 조사한다.
4. 수납공간크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재 방면적에서의 수납공간 증가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다.
5. 사용하고 있는 옷장 및 이불장의 깊이와, 옷걸이대 높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다.
6. 상용치않는 물품의 수납실태와 희망하는 보관장소를 조사한다.

II. 연구 방법

본연구의 목적은 중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현재 수납공간 및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더욱 요구되는 수납설비의 유형 및 불박이장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자기응답식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옷장 및 이불장의 깊이와 옷걸이대 높이는 설문지 배부시 줄자를 동봉하여 거주자가 직접 실측, 기입하게 한 후 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40평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로 하였으며 설문지 전달방법은 7개 아파트단지 내 8개의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배부하여 주부가 응답토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320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80%), 다시 그 가운데서 293부를(사용율 91.6%)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시기는 1989년 11월 2일~11월 21일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다음의 6개항목에 대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1) 현재의 침대사용 여부 및 침대사용에 대한 희망여부
- 2) 각 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납가구 및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납설비
- 3) 각 방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 및 증가여부에 대한 의견
- 4) 제철용품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비율과 이들 물품의 수납공간에 대한 의견
- 5) 불박이장의 유무 및 설치에 대한 희망여부
- 6) 장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한편, 옷장 및 이불장의 깊이와 옷장안 옷걸이대 높이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한 후, F-test를 하였다. 또한 아파트의 평수와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마찬가지로 변량분석한 후 F-test로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세대학교 전자 계산소의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거주 아파트 평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이 전 구간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 방의 사용자 및 그 사용자의 연령은 <표 3-2>와 같이 나타났다. R1(제일큰방)의 경우 '부부'가 사용한다는 응답이 86.1%로 압도적이었고, R2(두번째큰방)와 R3(세번째큰방)는 '자녀'가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78.1%와 84.1%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자의 연령면에서도 R1 사용자의 경우는 40대가 59.8%, 30대가 2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부부의 사용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또, R2의 사용자 연령은 10대가 70.1%로, R3의 사용자 연령 역시 10대가 6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주로 자녀실로 사용됨을 나타내고 있다.

3.2. 침대사용 현황 및 희망사항

침대사용여부는 침구수납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연구에서는 침실의 수납물 중 용적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침구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변화추이를 일부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침대사용현황과 앞으로의 사용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3-3>참조)

현재의 침대사용율을 아파트 평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R1은 29.1%, R2는 40.0%, R3는 39.4%로 R1보다는 R2 및 R3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를 아파트 평수별로 살펴보면, <표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파트 평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침대

<표 3-1> 아파트 평수별 응답자수의 분포

	빈도 (f)	백분율 (%)
20.0평 이하	49	16.8
20.0-25.0평 이하	66	22.6
25.0-30.0평 이하	66	22.6
30.0-35.0평 이하	80	27.4
35.0-40.0평 이하	31	10.6
계	292	100.0

〈표 3-2〉 각방의 사용자 및 사용자연령

사용자 방		R1		R2		R3	
		f	%	f	%	f	%
사 용 자	부 부	248	86.1	39	14.0	16	7.5
	자 녀	24	8.3	218	78.7	180	84.1
	부부+자녀	5	1.7	1	0.4		
	조부모	9	3.1	8	2.9	11	5.1
	조부모+자녀	1	0.3	8	2.9	2	0.9
	기 타	1	0.3	3	1.1	5	2.3
	계	288	99.8	277	100.0	214	99.9
사 용 자 연 령	0 - 9세	2	0.7	21	7.8	36	17.3
	10대	18	6.5	188	70.1	142	68.3
	20대	4	1.4	12	4.5	6	2.9
	30대	65	23.3	13	4.9	5	2.4
	40대	167	59.8	18	6.7	5	2.4
	50대	15	5.4	2	0.7	1	0.5
	60대	3	1.1	7	2.6	4	1.9
	70대	5	1.8	6	2.2	6	2.9
	80대			1	0.4	3	1.4
계	279	100.0	268	99.9	208	100.0	

〈표 3-3〉 각 방의 침대사용 및 희망여부

침대 사용 방	현재 침대사용 여부				침대사용 희망여부			
	사용한다		하지않는다		사용하고싶다		하고싶지않다	
	f	%	f	%	f	%	f	%
R1	80	29.1	195	70.9	74	39.6	113	60.4
R2	100	40.0	150	60.0	99	61.1	63	38.9
R3	74	39.4	114	60.6	68	55.7	54	44.3

〈표 3-4〉 아파트 평수별 각 방의 침대사용 및 희망여부

평수	방	현재 침대사용 여부				침대사용 희망여부				무 응 답	
		사용한다		하지않는다		사용하고싶다		하고싶지않다			
		f	%	f	%	f	%	f	%	f	%
20.0 평 이하	R1	4	8.9	41	91.1	21	46.7	21	46.7	3	6.6
	R2	4	9.5	38	90.5	23	54.8	17	40.5	2	4.7
	R3			1		3		2			
25.0 평 이하	R1	15	25.9	43	74.1	19	32.8	22	37.9	17	29.3
	R2	25	45.5	30	54.5	18	32.7	12	21.8	25	45.5
	R3	17	43.6	22	56.4	14	35.9	16	41.0	9	23.1
30.0 평 이하	R1	21	32.3	44	67.7	10	15.4	32	49.2	23	35.4
	R2	20	35.7	36	64.3	24	42.9	18	32.1	14	25.0
	R3	12	22.6	41	77.4	20	37.0	20	37.7	13	24.6
35.0 평 이하	R1	29	37.7	48	62.3	17	22.1	29	37.7	31	40.2
	R2	36	52.9	32	47.1	28	41.2	10	14.7	30	44.1
	R3	36	50.7	35	49.3	22	31.0	11	15.3	38	53.5
40.0 평 이하	R1	11	37.9	18	60.1	6	20.7	9	33.3	14	46.0
	R2	15	53.0	13	47.0	5	17.9	6	21.4	17	60.7
	R3	8	34.0	15	66.0	9	39.1	5	21.7	9	39.2

사용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평수에 있어서도 R1보다는 R2의 침대사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침대를 '사용하고 싶다'고 희망을 나타낸 응답을 역시 모든 평수의 아파트에 걸쳐 R1보다는 R2나 R3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현재의 침대사용율이나 앞으로의 침대사용 희망율이 R1보다 R2 및 R3에 대해 높게 나타난 것은, 대체로 부모세대 보다는 자녀세대가 침대사용을 선호하고, 또한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R1 즉 안방에 대한 실 사용상의 규범은 부부취침 외에 단란, 접객 행위, 가사행위, 자녀공부 등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게 됨으로(대한주택공사, 1987;이홍재, 1986), 방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침대의 사용율이 R2이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방 사용자가 '자녀'인 비율이 R2보다도 높은 R3에서는 오히려 침대 사용율이 R2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데, 이는 R3가 '세번째큰방'인 만큼, 그 공간의 면적이 침대를 들여놓기에 충분치 못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들을 미루어 보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체로 공간이 허락 된다면 침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이 높으며, 특히 안방보다는 자녀방에 대한 침대사용 희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R2에서의 침대사용율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R1은 주거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다목적 기능이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R1에서의 침대사용율은 실제로 크게 높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R1에서의 침구수납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불박이가구의 소유유무 및 희망

현재 불박이장의 설치여부와 앞으로 불박이장의 설치에 대한 희망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5>와 같다.

먼저, 현재의 불박이장 설치율을 보면,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R1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평균10.6%), R1보다는 R2(평균22.2%), R2보다는 R3(평균39.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설계업자들이 R1에는 거의 모든 거주자들이 장롱은 들여놓음으로 불박이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각 방안에 대해 불박이장을 설치해 줄 것을 크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불박이장의 설치율이 낮은 R1에서도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평

<표 3-5> 평수별 현재 불박이장 유무와 불박이장에 대한 희망

평수	방	현재 불박이장 유무				불박이장에 대한 희망여부			
		현재 불박이장 유무		불박이장에 대한 희망여부		희망		비 희망	
		f	%	f	%	f	%	f	%
20.0 평 이하	R1	8	18.2	36	81.8	32	72.7	12	27.3
	R2	8	21.6	29	78.4	32	82.1	7	17.9
	R3	3	75.0	1	25.0	3			
20.0 25.0 이하	R1	3	4.9	58	95.1	44	74.6	15	25.4
	R2	6	10.2	53	89.8	50	84.7	9	15.3
	R3	5	10.2	44	89.8	50	84.7	9	15.3
25.0 30.0 이하	R1	9	15.5	49	84.5	36	66.7	18	33.3
	R2	11	19.3	46	80.7	51	89.5	6	10.5
	R3	19	37.3	32	62.7	41	87.2	6	12.8
30.0 35.0 이하	R1	3	4.4	65	95.6	45	70.3	19	29.7
	R2	28	39.4	43	60.6	62	91.2	3	8.8
	R3	30	43.5	39	56.5	49	81.7	11	18.3
35.0 40.0 이하	R1	3	10.0	27	90.0	16	72.7	6	27.3
	R2	3	10.7	25	89.3	20	80.0	5	20.0
	R3	8	30.8	18	69.2	16	84.2	3	15.8

간 70.0%정도가 불박이장 설치를 희망하였으며 R2와 R3에서의 불박이장 설치에 대한 희망은 R1에서 보다 더욱 컸는데, 특히 R2(평균85.5%)에 대해 그 희망이 가장 컸다.

이는 뒤에서 언급될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이다. 즉, 각 방에 대한 수납공간이 '조금' 또는 '아주' 부족하다고 한 응답율이 대체로 R2-R3-R1의 순서로 나타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수납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불박이장 설치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불박이장이 있더라도 장롱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한 응답율이 4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3-6>참조) 이는 아직까지도 장롱을 거의 필수적인 가구품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로 장롱을 들여놓게되는 R1에서는 R2나 R3에 비해 불박이장 설치에 대한 희망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불박이장이 있더라도 장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불박이장 만으로는 물품보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0%, 다음

'장롱과 불박이장은 그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6%로 주요원인이 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롱을 불박이장과는 달리 나의 선호가 반영된 물품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2%, '장롱은 혼수용품이므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로 나타나 실용적인 요인 이외에도 개인적 선호나 장식성의 중요함을 들고 있다. (<표3-7>참조)

또한 그밖에 장롱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전통 가구이므로 전통성의 유지를 위해', '안방의 분위기상 필요하기 때문에', '긴옷 등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등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 '불박이장은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라 꺼림직하기 때문에', '불박이장은 청소하기 어려워져 비위생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불박이장외에 장롱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가 '물품보관 장소의 부족'이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된 불박이장을 제공함으로써 장롱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의 생활양식이나 생활수준, 가족수, 아파트의 규모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개개인의 수납물량 및 그 종류는 다양할 것이므로 모든 거주자를 만족

<표 3-6> 불박이장과 장롱의 필요성 여부

불박이장이 있더라도 장롱은 따로 필요하다		불박이장이 있으면 장롱은 따로 들 필요없다	
f	%	f	%
118	41.8	164	58.2

<표 3-7> 불박이장과 함께 장롱이 필요한 이유

장롱이 필요한 이유	빈 도(f)	백분율(%)
(1) 장롱과 불박이장은 그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49	7.5
(2) 장롱과 불박이장의 용도는 서로 다른것이 없지만, 장롱은 혼수용품이므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	
(3) 장롱은 실용성 이외에도 장식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12	
(4) 장롱은 불박이장과 달리 나의 선호가 반영된 물품이기 때문에	20	
(5) 불박이장 만으로는 물품 보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54	
	146	100.0

시킬 수 있는 불박이장의 계획이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박이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장롱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아파트 거주자들의 기본적 소유물품의 수납에 보다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불박이장을 계획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4. 각 방의 보유가구 및 더 필요한 수납설비

각 방의 보유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가구의 종류를 선별하여 10개항목에 대한 소유를 조사하였다. 각 아파트 평수별 R1, R2, R3의 이불장, 옷장, 서랍장, 장식장, 책장, 문갑, 화장대, 간이장, 옷걸이대 또는 행거(hanger)에 대한 소유율은 <표 3-

8>과 같다.

이 중 R1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는 이불장과 옷장으로, 평균적으로 약 90%정도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옷걸이나 행거의 보유율은 높아 약 60% 정도의 보유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옷장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가구는 아파트 평수에 상관없이 높은 보유율을 보여, 침구류 및 의류를 수납하기 위한 가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R1에서 보유율이 높게 나타난 가구는 화장대—문갑—서랍장의 순서였는데, 이들 가구는 아파트 평수가 커질수록 그 보유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공간이 허락된다면 옷장과 이불장 다음으로 소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가구인 것으로 파악된

<표 3-8> 평수별 각방의 보유가구

		이불장		옷 장		서랍장		장식장		책 장		문 갑		화장대		간이장		옷걸이 행 거	
		f	%	f	%	f	%	f	%	f	%	f	%	f	%	f	%	f	%
20.0 평 이하	R	43	87.8	39	91.8	10	44.9	60	24.5	28	26.5	22	44.9	24	49.0	03	06.1	32	65.3
	R	13	26.5	16	32.7	20	40.8	09	18.4	32	65.3	04	08.2	07	14.3	05	10.2	15	30.6
	R					02	04.1			02	04.1					01	02.0	04	08.2
20.0 - 25.0 이하	R	61	92.4	62	93.8	30	45.5	08	12.1	11	16.7	32	48.5	45	68.2	11	16.7	40	60.6
	R	19	28.8	28	42.4	21	31.8	21	31.8	45	68.2	03	04.5	04	06.1	04	06.1	24	36.4
	R	08	12.1	10	15.2	16	24.2	09	13.6	32	48.5			03	04.5	08	12.1	10	10.3
25.0 - 30.0 이하	R	61	92.4	59	89.4	31	47.0	11	16.7	04	06.1	36	54.5	47	71.2	03	04.5	41	62.1
	R	23	34.8	28	42.4	25	37.9	13	19.7	37	56.1	07	10.6	02	03.0	04	06.1	28	42.4
	R	10	15.2	16	24.2	13	19.7	11	16.7	32	48.5	01	01.5	02	03.0	07	10.6	13	19.7
30.0 - 35.0 이하	R	72	90.0	71	88.8	40	50.0	17	21.3	10	12.5	55	68.8	64	80.0	04	05.0	42	52.5
	R	31	38.7	41	51.3	20	25.0	11	13.8	60	75.0	04	05.0	04	05.0	02	02.5	29	36.2
	R	25	31.3	33	41.3	24	30.0	11	13.8	51	63.8	06	07.5	04	05.0	04	05.0	31	38.7
35.0 - 40.0 이하	R	26	83.9	28	90.3	16	51.6	09	29.0	03	09.7	22	71.0	28	90.3	01	03.2	23	74.2
	R	12	38.7	15	48.4	10	32.3	08	25.8	24	77.4	01	3.2	01	03.2	03	09.7	10	32.3
	R	06	19.4	11	35.5	11	35.5	06	19.4	18	58.1	01	3.2	01	03.2	04	12.9	07	22.6

<표 3-9> 아파트 평수별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

아파트 평수	빈도	평균*	F-value
20.0평 이하	49	2.8367	4.9145**
20.0-25.0평 이하	66	2.7576	
25.0-30.0 평 이하	66	2.4697	
30.0-35.0평 이하	80	2.2375	
35.0-40.0평 이하	31	2.4516	

* 1:충분하다 2:적당하다 3:조금 부족하다 4:아주 부족하다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다.

그 밖에 R1의 장식장, 책장, 간이장 등을 필수적이기 보다는 개개인에 따른 취향이나 생활양식 및 필요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가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R2의 경우는 이불장과 옷장의 보유율이 R1에 비해 약 1/3가량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서랍장은 약 2/3가량으로 이불장이나 옷장에 비해서는 그 보유율이 높았다. 이는 R2의 경우 침대사용율이 높고 침구류의 보유량도 적어 이불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주로 자녀세대가 사용하는 방이므로 R1 보다는 걸어놓는 의류에 비해 개어서 보관하는 의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랍장의 보유율도 따라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소유한 수납고 크기에 대한 만족도

1) 전체적 수납공간 크기에 대한 만족도

아파트의 규모와 그에 따른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 정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하여 F-test한 결과, <표3-10>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40평 이하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모두가 수납공간에 대해 대체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파트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러한 불만족 정도가 커지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아파트 평수별로 살펴본 각 방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표3-11>과 같다. 이 중 R1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납공간이 '아주' 또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한 응답율이 19.9평 이하에서 67.3%, 20.0-24.9평에서 72.7%, 25.0-29.9평에서 50.0%, 30.0-34.9평에서 46.3%, 35.0-39.9평에서 54.9%로 나타나 R1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R1에서 수납공간이 '아주' 부족하다고 한 응답율만을 살펴보면, 19.9평 이하에서 26.5%, 20.0-24.9평에서 13.6%, 25.0-29.9평에서 9.1%, 30.0-34.9평에서 5.0%, 35.0-39.9평에서 9.7%로, 대체로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면 수납공간이 '아주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말해, 거주자들은 R1의 수납공간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아파트 규모가 커질수록 '아주 부족'하다는 느낌은 감소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면 자연히 수납공간도 넓어지므로 현실적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정도인 '아주 부족'하다는 느낌은 감소되지만, 수납물량이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0> 각 방의 수납공간에 대한 느낌

평수	방	느낌		충분		적당		조금부족		아주부족		무응답	계
		f	%	f	%	f	%	f	%				
20.0 평 이하	R1	5	10.2	11	22.4	20	40.8	13	26.5			49	
	R2	2	4.1	14	28.6	12	24.5	20	40.8	1			
	R3			1	2.0	3	6.1	2	4.1	43			
20.0 25.0평 이하	R1	7	10.6	11	16.7	39	59.1	9	13.6			66	
	R2	5	7.6	7	10.6	39	59.1	15	22.7				
	R3	2	3.0	7	10.6	25	37.9	19	28.8	13			
25.0 30.0평 이하	R1	8	12.1	25	37.9	27	40.9	6	9.1			66	
	R2	2	3.0	16	24.2	34	51.5	12	18.2	2			
	R3	3	4.5	11	16.7	28	42.4	16	24.2	8			
30.0 35.0평 이하	R1	22	27.5	21	26.3	33	41.3	4	5.0			80	
	R2	10	12.5	23	28.8	43	53.8	4	5.0				
	R3	7	8.8	17	21.3	39	48.7	15	18.8	2			
35.0 40.0평 이하	R1	6	19.4	8	25.8	14	45.2	3	9.7			31	
	R2	5	16.1	11	35.5	14	45.2	1	3.2				
	R3	3	9.7	9	29.0	16	51.6	2	6.5	1			

R2의 경우, 수납공간이 '아주' 또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한 응답율이 19.9평 이하에서 65.3%, 20.0-24.9평에서 81.8%, 25.0-29.9평에서 67.7%, 30.0-34.9평에서 58.8%, 35.0-39.9평에서 58.1%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수납공간에 대한 불만족도는 R1보다는 R2나 R3에서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발탁 이장의 설치율은 R2, R3에서 R1보다 다소 높지만 다른 수납가구의 보유율이 R1에서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3-8>참조) 그런데 R2 및 R3는 각각 '두번째 큰방', '세번째 큰방'인 만큼, 면적상 더 많은 수납공간의 할애가 어려우며 대개 안방인 R1에 장롱을 들여놓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므로, R2나 R3에서 더 많은 수납가구로서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

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납공간 면적의 증가보다는 효율적인 수납공간의 계획이 중요한 문제이다.

2) 수납공간 증가여부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

한편 조사대상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물품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방 면적을 할애하여 수납공간을 늘리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방면적이 조금 좁아지더라도 수납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가」 혹은 「물품수납장소가 부족하긴 하나 방면적인 좁아지는 것은 원치 않으므로 그대로가 좋겠는가」하는 물음에 대해 후자가 좋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표3-11>참조)

<표 3-11> 수납공간 증가에 대한 희망여부

평수	의견 방	현재 방면적이 조금 좁아지더라도 수납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물품수납장소가 부족하지만 방면적이 좁아지는 것이 싫어 그대로그 좋다		계 f
		f	%	f	%	
		20.0 평 이하	R1	5	14.3	
	R2	8	22.9	27	77.1	35
	R3	1	20.0	4	80.0	5
20.0 25.0평 이하	R1	10	20.0	40	80.0	50
	R2	11	20.4	43	79.6	54
	R3	5	12.2	36	87.8	41
25.0 30.0평 이하	R1	7	17.1	34	82.9	41
	R2	6	11.8	45	88.2	51
	R3	3	6.3	45	93.7	46
30.0 35.0평 이하	R1	13	28.3	33	71.7	46
	R2	10	19.6	41	80.4	51
	R3	7	13.7	44	86.3	51
35.0 45.0평 이하	R1	3	17.6	14	82.4	17
	R2	8	50.0	8	50.0	16
	R3	6	35.3	11	64.7	17

<표 3-12> 이불장김이와 그에 따른 만족도

깊이(cm)	빈도(f)	백분율(%)	평균 점수	F-value N.S. 2.4037
51-55	7	3.4	3.2857	
56-60	52	25.1	3.3846	
61-65	77	37.2	3.3247	
66-70	67	32.4	3.0448	
71-75	4	1.9	3.2500	
계	207	100.0		

이러한 의견을 아파트 규모와는 별로 무관하게 나타났으나, 각 아파트 평수에서 방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대체로 R1이나 R3에서 방면적이 좁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향이 R2에 비해 좀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R1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침침이라는 단일용도 외에 단란, 접객, 가사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게 되므로 방 면적의 감소를 원치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R3의 경우는 현재 수납공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지만, 방면적이 R1, R2에 비해 작고, 불박이장 설치율은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면적 감소는 원치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같은 사실들, 즉 대부분의 40평미만 아파트 거주자들이 각 방의 수납공간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낮으면서도 방면적을 할애하여 수납공간을 늘리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 또한 불박이장이 설치된 침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수납공간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이불장, 옷장 깊이와 옷걸이대 높이 및 그에 따른 만족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불장 및 옷장의 깊이’는 각각 <표 3-12>와 <표 3-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불장의 경우 전체 응답 중 94.7%가, 옷장의 경우 90.1%가 56~70cm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장롱의 깊이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이불장의 경우 전체 응답의 62.4%가 옷장의 경우는 63.4%가 ‘적당하다’고 답하였으며, ‘조금 좁다’로 한 응답이 이불장의 경우 28.4%, 옷장의 경우 28.0%였다(<표 3-13>, <표 3-15> 참조).

또, 구간별 장롱의 깊이와 그에 따른 만족정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하여 F-test한 결과, 평균치로 보았을 때 이불장, 옷장 모두 66~70cm가 가장 적절한 깊이로 나타났으나, 이불장의 경우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옷장안의 옷걸이대 높이는 111~150cm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표 3-16> 참조), 옷걸이대 높이에 대한 의견은 ‘적당하다’는 응답이 60.5%로 가장 많았고 ‘조금 낮다’는 응답이 27.8%로 그

<표 3-13> 이불장의 깊이에 대한 의견

의견	점수	빈도(f)	백분율(%)
너무 깊다	1	2	0.7
조금 깊다	2	17	6.0
적당하다	3	176	62.4
조금 좁다	4	80	28.4
너무 좁다	5	7	2.5
계		282	100.0

<표 3-14> 옷장의 깊이와 그에 따른 만족도

깊이(cm)	빈도(f)	백분율(%)	평균 점수	F-value
46-50	6	2.8	3.3333	2.5213*
51-55	9	4.3	3.6667	
56-60	55	26.1	3.3818	
61-65	73	34.6	3.2877	
66-70	62	29.4	3.0161	
71-75	6	2.8	3.1667	
계	211	100.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3-15〉 옷장의 깊이에 대한 의견

의견	점수	빈도(f)	백분율(%)
너무 깊다	1	2	0.7
조금 깊다	2	12	4.3
적당하다	3	177	63.4
조금 좁다	4	78	28.0
너무 좁다	5	10	3.6
계		279	100.0

〈표 3-16〉 옷걸이대 높이와 그에 따른 만족도

높이(cm)	높이(f)	백분율(%)	평균 점수	F-value
100-110	10	4.0	3.4000	4.2792**
111-120	36	14.7	3.4722	
121-130	51	20.8	3.2352	
131-140	72	29.4	3.2222	
141-150	53	21.6	2.8679	
151-160	18	7.3	2.6667	
161-170	5	2.1	3.4000	
	245	100.0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3-17〉 옷걸이대 높이에 대한 의견

의견	점수	빈도(f)	백분율(%)
너무 높다	1	6	2.1
조금 높다	2	21	7.5
적당하다	3	170	60.5
조금 낮다	4	78	27.8
너무 낮다	5	6	2.1
계		281	100.0

다음이었다(〈표 3-17〉 참조).

또한 구간별 옷걸이대 높이와 그에 따른 만족정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하여 F-test한 결과, 131~150cm에서 '적당하다'고 느끼는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001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본조사에서의 '옷걸이대 높이'란 옷장 하단에 있는 서랍의 윗판으로부터 옷걸이대까지의 높이를 의미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서랍이 30cm 정도라고 할 때, 바람직한 옷걸이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0~180cm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3.7. 비사용물품의 수납실태 및 희망

'각 방에 있어 가구별로 수납된 물품 중에서 계절용품이나 거의 사용치 않는 물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3-18〉과 같다.

계절용품 및 거의 사용치 않는 물품의 양은 서랍장, 이불장, 옷장, 붙박이장 모두 20%미만이라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20~40% 또는 40~60%라는 응답도 상당수였으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한편 이러한 '사용치 않는 물품'을 보관할 장소에 대한 의견은 〈표 3-19〉와 같다. 즉 이러한 물품들은 별도의 공간이 할애된다면 꼭 현재 위치에 수납할

〈표 3-18〉 수납가구내의 안쓰는 물건의
수납비율(빈도수)

방 의 크 기 순	서랍장					이불장					옷장					불박이장				
	20 %	20 	40 	60 	80 %	20 %	20 	40 	60 	80 %	20 %	20 	40 	60 	80 %	20 미	20 	40 	60 	80 %
만	40	60	80	상	만	40	60	80	상	만	40	60	80	상	만	40	60	80	상	
R1	89	49	39	10	10	80	60	58	28	22	86	71	61	18	16	18	6	7	3	3
R2	66	44	26	7	8	56	28	24	12	6	52	39	25	9	12	25	9	11	3	7
R3	47	25	19	9	4	36	18	17	3	6	34	29	21	3	7	27	10	13	10	5

* —은 가장 많은 빈도의 응답자 수.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응답도 39.6%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일정 간격으로 폐기처분하므로 수납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9%에 불과하였다.

이는 거주자들이 현재 사용치 않는 물품이라도 보관하고자 하는 희망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택내에 어떤 형태로는 이러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침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용치 않는 것이라도 그방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소규모 아파트의 침실을 중심으로 수납공간 및 수납가구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거주자의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앞으로 침대사용율(특히 R2에서의)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한된 주거면적으로 인해 R1, 즉 안방은 다목적기능이 유지될 것이므로 침대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분간 안방에서의 침구수납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조사대상 아파트 거주자 대부분이 현재의 수납공간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정도는 아파트 평수가 작을수록 더욱 심했다. 그리고 방별로 보면 R1 보다는 R2, R3에서 더욱 수납공간의 부족을 느

끼고 있었는데 이는 R1에 비해 R2, R3의 실크기가 작고 충분한 크기의 가구를 별도로 들여놓을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납설비로는 옷장, 이불장, 서랍장, 화장대, 문갑, 책장, 간이장, 행거 등의 소유율이 높은데도 모든 실에서 옷장, 서랍장의 부족율을 제일로 꼽고 있다. 이는 한정된 면적에 다양한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가구들의 다양한 높낮이와 깊이에서 발생하는 사공간을 최소화하고 천정고까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불박이 가구의 제공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조사된 아파트 중 불박이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는데, R1은 R2, R3에 비해 특히 낮았다. 반면 불박이가구의 설치를 회

〈표 3-19〉 사용치 않은 물품의 보관장소에
대한 의견

의견	빈도 (f)	백분율 (%)
(1)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116	39.6
(2) 별도의 공간이 할애된다면 꼭 현재 위 위치에 수납할 필요는 없다.	121	41.3
(3) 일정 간격으로 처분하므로 반드시 수납공간이 있을 필요는 없다.	32	10.9
무응답	24	8.2
	293	100.0

망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적은 평수 일수록 더욱 높았다. 한편 불박이가구가 있더라도 장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수납공간의 양적 부족과 기능성, 그리고 장식성, 개성의 표현 등을 들었다. 개인적 선호나 취향을 반영하는 부분까지 불박이장으로 해결하기는 다소 어렵겠으나, 수납공간의 양적 기능은 불박이가구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이상 대형화된 장롱은 불박이가구에 의해 상당히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계절용인 물품의 비율은 전체수납물의 약 20~30% 정도였으며, 이들 물품은 가능한 그 방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이 높았다. 따라서 각 실별 수납공간은 필수적이며 그 크기는 계절용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불박이가구를 활용한다면 천정고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위치라 하더라도 이와같은 상용치 않는 물품을 보관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침실에 국한시켜 수납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침실외에 거실, 부엌, 다용도실 등 다른 공간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좁은 공간의 물품수납을 위해서는 불박이가구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거주자의 물품상태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실제로 변형이나 조립이 가능한 가변적 불박이장의 실용화계획을 위한 구체적 연구 및 기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불박이가구는 건물구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연구로는 실용화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아파트 설계자, 건설업자, 가구 및 자재생산자 등의 상호 정보교환과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병희(1980),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동아공대 연구보고, 4권 2호.
- 2) 광인숙(1983),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 3) 김용환(1984),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4) 김일진(1971), 주거계획에 있어서 수납공간에 대한 고찰. 영남대 논문집, 제4집.
- 5) 김일진(1972), 국민주택에 있어서 수납스페이스에 관한 고찰. 영남대 논문집, 제6집.
- 6) 김종인(1972), 가구이용면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6권 48호.
- 7) 대한주택공사(1987). 수요특성에 따른 소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 8) 박영순(1989), 아파트 수납공간의 양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 9) 송규풍(1987), 아파트 수납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 10) 송종석, 이인희(1975). 소득계층별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6호.
- 11) 이인희(1975), 우리나라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12) 이 훈(1980), 주거평면에 따른 공간활용상태의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 13) 이흥재(1986), 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14) 정규복(1982), 주공간에서 본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15) 최영규(1986), 중산층 아파트의 생활패턴, 수납공간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16) 허 선(1987), 아파트 주거공간의 불박이가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17) 小島信男(1978), 집합주택의 수납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대회 학술강연개요.
- 18) 谷口汎邦, 崔在順(1988), 생활용품으로 본 公社住宅 공간이용 실태와 질서화의 문제. 일본건축학회지.
- 19) 一棟宏子 外(1984), 住宅の版納に關する基礎的研究(第一報). 家庭學雜誌, Vol. 35, No. 6.